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글로벌인재(국제계열 1번)

=====

※ You have 20 minutes for reviewing questions and preparing answers, and 10 minutes for interview.

【Question 1】 Please read the two passages below and answer each question.

[A] Government policy in many advanced economies prioritizes economic growth. A recent study from the United States compare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states on both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The United States ranked near the top for GDP per capita, but near the bottom for life expectancy and trust in the government, with a middle ranking for overall life satisfaction. Researchers call this a “prosperity paradox” where the economy is strong, yet people’s well-being is low.

[B] The study mentioned several reasons for this paradox. Joseph Rom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aid that “the strong economic performance has principally provided gains for the wealthiest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 Douglas Harris, an economist at Tulane University, added that “if there is one overall theme, it’s that we’re pulling apart –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Yet others argue that wealth itself is part of the problem. Anna Lembke, a psychiatrist at Stanford University, said that “our brains evolved for a world of scarcity, and the kind of abundance we are experiencing now is a mismatch for them. In this world in which everything has become more potent,* more accessible, more novel and more bountiful,** we’re prone to overconsume and make ourselves sick.”

* potent: powerful, strong

** bountiful: plentiful, available in large amounts

(Question 1-1) What do the text passages [A] and [B] tell u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economic success of a n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its citizens? What are the two reasons for this difference stated in the text?

(Question 1-2) In your opinion, what is more important as a policy goal for an OECD nation – economic growth or citizens’ life satisfaction? Explain your view with reasons or examples.

【문제 1】 아래의 제시문을 잘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A] 많은 선진국의 정부 정책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 모두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미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지만, 기대수명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하위권,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번영의 역설 (prosperity paradox)” 이라 부르는데, 이는 경제는 강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B]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설이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조지프 롬 (Joseph Romm) 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는 주로 상위 10%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고 말했다. 툴레인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더글러스 해리스 (Douglas Harris) 는 “이 현상의 핵심 주제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경제적 부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 교수 안나 렘브키 (Anna Lembke) 는 “우리의 뇌는 본래 고통의 세계에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풍요는 인간의 본래 구조와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모든 것이 더욱 강력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지고, 새롭고,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소비와 과잉 탐닉에 빠져 스스로를 병들게 하기 쉽다” 고 설명했다.

(문제 1-1)

[A]와 [B] 제시문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삶의 만족도 간에 존재하는 (2가지) 차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1-2)

OECD 국가의 정책 목표로서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만족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Purpose of Test)

문제 1-1

This questions aims to test the student's ability to read and summarize information about a topic in the social sciences, namely, the "prosperity paradox". This paradox describes the case of a nation with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GDP per capita) that fails to be accompanied by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The text uses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anks top in terms of GDP per capita, yet at the bottom in terms of life expectancy and trust in the government among OECD member states, with life satisfaction in the middle. Explanations given include both economic and social reasons (such as income gains realized mainly for the top 10% of the income distribution and increasing soci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but also an evolutionary reason: the human brain has developed to thrive in conditions of scarcity, not abundance, which may lead to over-consumption and resulting sickness in wealthy societies. The question also aims to test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a good life - what is needed to live a happy and fulfilled life? It also invites reflections over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towards its citizens - should governments prioritize economic growth or citizens' happiness? Lastly, it also relates to questions of sustainability and justice.

문제 1-2

This question aims to test the student's ability to link the contents of the text to either own experiences or examples. It is intended to assess the student's ability to formulate and express a reasoned personal opinion on a complex socio-economic issu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growth versus citizens'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s a national policy goal.

The question encourages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prosperity and well-being, drawing on both the ideas presented in the reading passage and their own reasoning or experience.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a clear stance and justify their opinion with logical arguments, examples, or evidence.

Through this question, the examiner aims to evaluate not only th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skills (clarity, coherence, and organization), but also their ability to connect abstract social concepts to real-world implications, such as sustainability, equality,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its citizens.

[출제 의도]

문제 1-1

이 문제는 학생이 사회과학 주제인 “번영의 역설(prosperity paradox)”에 대한 정보를 읽고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영의 역설은 한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기반(예: 1인당 GDP)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은 1인당 GDP 측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과 정부 신뢰도는 하위권이며,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예: 소득 증가가 주로 상위 10%에게 집중되고, 사회적·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됨)뿐 아니라 진화적 이유도 포함된다. 인간의 뇌는 결핍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발달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과소비와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학생이 인간다운 삶의 개념, 즉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가 시민에게 가지는 책임 (경제성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시민의 행복을 우선시할 것인지) 에 대한 성찰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1-2

이 문제는 학생이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와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성장과 시민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국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물질적 번영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본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자신의 논리적 추론이나 경험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학생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논리적 근거, 사례,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 문제를 통해 평가자는 학생의 critical thinking과 논증 능력 (명료성, 일관성, 조직력)뿐 아니라, 추상적인 사회 개념을 현실 세계의 함의(예: 지속 가능성, 형평성, 정부의 시민 복지 책임)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Guideline)

- 문제 1-1

The passage discusses the “prosperity paradox”, a situation in which a country enjoys strong economic performance but low overall well-being among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serves as an example: it ranks highly in GDP per capita but poorly in life expectancy and trust in government, with only average life satisfaction.

The text explores several reasons for this paradox. Economic gains have largely benefited the wealthiest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contributing to growing inequality and social-political division. Additionally, the passage suggests that modern abundance itself may be harmful: human brains evolved for scarcity, so when resources and pleasures are overly abundant, people tend to overconsume, leading to unhappiness and illness.

A complete answer should include these points, showing that economic growth alone does not guarantee social well-being, and briefly describe the key reasons given in the text (inequality, polarization, and evolutionary mismatch).

문제 1-2

This question asks students to reflect on what governments in advanced economies should prioritize — economic growth or citizens’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t builds on the themes introduced in the reading passage, particularly the “prosperity paradox,” where economic succes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well-being.

A strong response should clearly state the student’s position and support it with logical reasoning, examples, or evidence. Students may argue that economic growth is essential for national stability, innovation, job creation, and the funding of welfare programs. Others may take the view that prioritizing happiness and well-being leads to more sustainable, equitable, and mentally healthy societies, which might also be accompanied by more trust in democracy or cultural and social flourishing, or link the ideas discussed in the article to broader issues, such as basic income or 4-day workweek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The key point is not which side the student chooses, but how well they justify their opinion and connect it to broader soci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High-quality answers will demonstrate balanced reasoning, awareness of multiple perspectives, and the ability to link abstract ideas (such as “growth” or “happiness”) to real-world consequences for people and policy.

[문항 해설]

문제 1-1

이 지문은 "번영의 역설(prosperity paradox)"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복지가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이 예로 제시되며, 미국은 1인당 GDP 측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기대수명과 정부 신뢰도는 낮고,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문에서는 이 역설의 여러 원인을 탐구한다. 경제적 성과가 주로 상위 10%에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정치적 분열이 심화된 점, 그리고 현대의 풍요 자체가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의 뇌는 결핍 환경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에, 자원과 즐거움이 과도하게 풍부해지면 과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불행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한 답안은 이러한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경제 성장만으로는 사회적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문에서 언급된 주요 원인(불평등, 양극화, 진화적 불일치)을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문제 1-2

이 문제는 학생이 선진국 정부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 경제 성장 또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 — 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 “번영의 역설”이라는 지문 주제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한 답안은 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리적 근거, 사례, 또는 증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학생은 경제 성장이 국가의 안정, 혁신, 일자리 창출, 복지 프로그램 재원 확보 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면 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민주주의 신뢰나 문화·사회적 번영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나 주 4일 근무제와 같은 선진국 실험과 지문 내용을 연계해 설명할 수도 있다.

핵심은 학생이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정당화하고, 이를 사회적·윤리적 고려와 연결하는지이다. 높은 수준의 답안은 균형 잡힌 논리,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장’이나 ‘행복’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 세계의 사람과 정책 결과와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Evaluation)

Sub-Question	Assessment Criteria	Breakdown
1-1	- The student provides a clear and accurate summary of the passage, correctly identifying the “prosperity paradox” and explaining how economic strength (e.g., GDP per capita) may coexist with low life expectancy, low trust in government, and only moderate life satisfaction. The response includes both reasons for this paradox discussed in the article (income inequality accompanied by social and political division, and evolutionary mismatch between human nature and abundance). The answer is well-organized, coherent, and uses appropriate vocabulary.	상
	- The student shows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passage and correctly mentions the idea that economic success does not always lead to happiness or quality of life. However, the explanation may be partial or underdeveloped, with only one reason mentioned or summarized inaccurately. Some details or key terms may be missing, but the main idea is still understandable.	중
	-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the passage.	하
1-2	- The student presents a clear and well-reasoned opinion on whether governments should prioritize economic growth or citizens’ happiness. The argument is logical, supported by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and shows awareness of the trade-offs involved (e.g., sustainability, inequality, social well-being). The answer is well-organized, coherent, and uses appropriate vocabulary.	상
	- The student states an opinion but provides limited or somewhat vague reasoning. Some relevant examples or arguments may be mentioned but not well-developed or clearly connected to the question. The response show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issue but lacks depth or balance.	중
	- The student fails to understand the passage.	하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1	- 학생이 지문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며, *“번영의 역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경제적 강점(예: 1인당 GDP)과 낮은 기대수명, 낮은 정부 신뢰도, 중간 수준의 삶의 만족도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답안에는 이 역설의 여러 이유(예: 소득 불평등, 사회·정치적 분열, 인간 본성과 풍요 사이의 진화적 불일치)가 포함되어 있다. 답안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상
	- 학생이 지문의 내용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이나 삶의 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언급한다. 그러나 설명이 부분적이거나 미흡하며,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되거나 요약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세부 사항이나 핵심 용어가 누락될 수 있으나, 핵심 생각은 이해한다.	중
	- 학생의 답변이 지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
1-2	- 학생이 정부가 경제 성장과 시민의 행복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주장은 논리적이며 구체적 이유나 사례로 뒷받침되며, 지속 가능성, 불평등, 사회적 복지 등 고려해야 할 균형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글은 일관성 있고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여준다.	상
	- 학생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근거가 제한적이거나 모호하다. 일부 관련 사례나 주장이 언급되지만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거나 질문과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깊이와 균형이 부족하다.	중
	- 학생의 답변이 지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글로벌인재(국제계열 2번)

=====

※ You have 20 minutes for reviewing questions and preparing answers, and 10 minutes for interview.

【Question 1】 Please read the two passages below and answer each question.

[A] The A.I. companionship* app industry is rapidly growing. These apps let users create their own A.I. companions or choose from pre-built personas** to chat through text or voice. Many are designed to simulate romantic or close relationships, and some promote themselves as a way to help with the so-called ‘loneliness epidemic’.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chatbots for personal advice and companionship.

[B] Supporters of A.I. companionship apps say that they can provide entertainment and emotional support. These apps are seen as potentially helpful for people who feel lonely or depressed, giving them someone to talk to and connect with. Some users have described positive experiences and have praised the benefits of forming A.I. friendships. A.I. chatbots can also provide a safe space to talk without fear of being judged.

[C] Critics argue that A.I. cannot replicate genuine human empathy and that it can create an illusion of connection rather than meaningful interaction. As a result, these apps may deepen loneliness and isolation by replacing real human connections. They also warn that A.I. companionship apps may manipulate emotions and behaviors, taking advantage of minors’ emotional immaturity. Because of these risks, experts and lawmakers are calling for stricter regulations on A.I. chatbot use among minors.

*companionship: the enjoyment of spending time with other people

**persona: a created character or personality

(Question 2-1) Summarize the main contents from each passage and provide the supporting reasons in Passages B and C.

(Question 2-2) What is your opinion on regulating teenagers’ use of A.I. companion apps? Support your idea with concrete reasons and examples.

【문제 2】 아래의 제시문을 잘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가] 인간과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AI 기반 동반자 앱(A.I. companionship app)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앱은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동반자를 만들거나, 가상의 캐릭터(persona)를 선택해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조언이나 정서적 교감을 위해 챗봇을 찾고 있다.

[나] AI 동반자 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앱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 앱은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용자들은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하며, 이런 관계의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AI 챗봇은 비판받을 걱정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그러나 AI 동반자 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처럼 진심 어린 공감을 보여줄 수 없으며, 실제 관계가 아닌 단순한 ‘연결된 느낌’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또한, AI 동반자 앱이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문제 2-1)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문제 2-2) 청소년의 동반자 AI 앱 사용 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유나 사례를 제시하시오.

(Purpose of Test)

This question evaluates interviewees' command on language and analytic skills in the context of A.I and human relationships.

[출제 의도]

이 질문은 학생들의 어학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A.I. 동반자 기술의 사례를 통해 평가한다.

(Guideline)

This question requires interviewees to summarize the key ideas from three passages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 on social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A.I. companionship technology.

Passage [A] introduces the rapid growth of the A.I. companionship app industry, describing how users can create or select A.I. partners that simulate romantic or close relationships. It also notes that these apps are promoted as a remedy for loneliness.

Passage [B] presents the positive perspectives on A.I. companionship apps. Supporters of the use of A.I. chatbots claim that such apps can provide entertainment and emotional support, helping lonely or depressed people feel connected. They also emphasize that A.I. chatbots offer a safe, non-judgmental space to express emotions.

Passage [C] offer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issue. Critics argue that A.I. cannot replicate real empathy and may create only an illusion of connection. They warn that A.I. companionship apps could manipulate emotions and behaviors, particularly among minors, and therefore call for stricter regulations to protect young users.

[문항 해설]

이 문제는 지원자들에게 세 개의 제시문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A.I. 동반자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 윤리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Evaluation)

Sub-Question	Assessment Criteria	Breakdown
2-1	The passages present conflicting perspectiv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 companionship apps and human emotional well-being. Candidates may also logically derive further ethical dilemmas from the text. This question aims to assess the candidate's literacy and analytical skills within a limited timeframe. Evaluation is categorized into High, Mid, and Low, with sub-criteria determined by the interviewing professor. ○ 'High': Logically articulates 4 or more conflicting points (e.g., emotional comfort vs. lack of empathy; safe expression vs. minor exploitation). Demonstrates total mastery of the material with clear, organized reasoning. ○ 'Mid': Summarizes 2 to 3 conflicts well but lacks deep analysis or a comprehensive grasp of the tension between the technological benefits and ethical risks. ○ 'Low': Simply lists points without illustrating a clear conflict. The response is superficial and lacks logical consistency.	25
2-2	This question evaluates the candidate's ability to take a logical stance on regulating AI companion apps for minors, integrating concepts of responsible technology and social development. Evaluation is categorized into High, Mid, and Low, with sub-criteria determined by the interviewing professor. ○ 'High': Presents a sophisticated argument for/against regulation with solid, rigorous reasoning. Successfully connects AI risks (emotional dependency, manipulation, social isolation) to high school ethics/social studies curricula. Provides specific real-world examples or policies to demonstrate total mastery. ○ 'Mid': Provides a clear and logical opinion with 2 or more supporting grounds. While the response is balanced and accurate, it lacks the specialized depth, sophisticated vocabulary, or detailed evidence found in the 'High' tier. ○ 'Low': Offers a basic opinion but fails to provide logical depth or analysis. The response may simply list common-sense points without demonstrating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thical or social implications for vulnerable groups.	25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2-1	제시문은 AI 컴패니언 앱이 인간의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충하는 관점들을 보여준다. 본 문항은 짧은 시간 내에 수험생의 문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평가는 상, 중, 하로 구분하되, 세부 기준은 면접교수의 판단에 따른다. ‘상’ : 4가지 이상의 갈등 상황(예: 정서적 위안 vs 공감 능력의 부재, 자유로운 감정 표현 vs 미성년자 착취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문제 장악력을 보여준다. 명확하고 조직적인 추론으로 내용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중’ : 2~3가지의 갈등 상황을 잘 정리하기는 하지만, 기술적 이익과 윤리적 위험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문제 장악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 : 갈등 상황들을 단순히 나열할 뿐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답변이 피상적이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25
2-2	본 문항은 책임 있는 기술 활용과 사회적 발달 개념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의 AI 컴패니언 앱 규제에 대해 논리적 입장을 설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는 상, 중, 하로 구분하되, 세부 기준은 면접교수의 판단에 따른다. ‘상’ : 규제 여부에 대해 정교하고 엄밀한 논거를 제시한다. AI의 위험성(정서적 의존, 조작, 사회적 고립 등)을 고교 교과 과정(윤리/사회)과 연계하여 설명하며, 실제 사례나 정책을 활용해 문제 장악력을 보여준다. ‘중’ :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의견을 전개한다. 답변이 균형 잡혀 있고 정확하지만, ‘상’ 수준에 비해 전문적인 깊이나 정교한 어휘력, 구체적인 사례 제시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 : 기본적인 의견은 제시하나 논리적 깊이나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식적인 수준의 나열에 그친다.	25